

미혼 남·녀 근로자가 보는 맞벌이가정의 심상과 일·가정 양립조건*

Unmarried Workers Perceptions of Image and Work-Family Balancing Conditions of Dual-Earner Families

광주대학교 가족복지전공
교 수 김 선 미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원 구 혜 령*
우석대학교 실버복지학과
교 수 이 승 미

Dept. of Family Welfare, Gwangju Univ.

Professor : Kim, Seon-Mi

Industry 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Woosuk Univ.

Researcher : Koo, Hye-Ryoung

Dept. of Senior Welfare, Woosuk Univ.

Professor : Lee, Seung-Mie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qualitative data to examine the attitude toward the conditions of and the barriers to the work-family balance among unmarried workers. The data was drawn from 5 focus groups consisting of 4 workers each. The 20 participants, aged 21 through 38, were interviewed in mini groups composed of 2 male workers and 2 female workers each. The research depicts four main themes about their work-family balance: the image of a dual-earner family, women's market labor, housework, and the ideal conditions of a dual-earner family. This research concluded that unmarried workers desperately want to be part of a dual earning family for economic survival. However, they also know that it would be very difficult to make ends meet and to live as dual-earner families because of the lack of a proper social support system. However, most of them believe that they must solve these problems on their own, and they do not expect to receive help from systematic public policies. They think that they should find solutions by rearranging the role divisions between the husband and the wife or by asking for help from their parents or other relatives. The only assistance they expect from the government are reliable child care facilities and governmental incentives to promote stimulate the family-friendly workplace.

▲주제어(Key Words) : 맞벌이가정(dual-earner families), 미혼 근로자(unmarried workers), 일-가정 양립 조건(work-family balancing conditions)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사회과학연구 지원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1-330-C00003).

** Corresponding Author: Koo, Hye-ryoung, Industry 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Woosuk University, Tel : +82-63-290-1529, E-mail : helen1126@hanmail.net

I. 문제제기

현재 한국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이슈인 저출산현상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도 복잡한데, 청년실업률 증가, 초혼연령의 상승에 의한 만혼화는 저출산현상의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과 관련하여 사회의 지속가능성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뿐 아니라 청년들의 행복한 인생 설계라는 일상적이고 미시적인 차원에서도, 장차 청년들이 꾸릴 가정생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생산시장과 소비시장이 세계화되고 자본은 고도로 집중되는 현재 시기에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거시경제적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이들이 꾸릴 가정도 안식처나 휴식처가 아니라 당대가 생존하기 위한 전략센터요, 자녀를 경쟁력 있는 노동자로 키우기 위한 전략센터가 되고 있다. 그런데 개인 혹은 개별 가정의 선택은 언제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것이라고 생각되기 쉬우나, 결혼과 일상적 가정생활에 관한 지속적 선택은 이미 거시적 차원에서 구조화된 특정 환경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자체로 많은 억압적인 요소들을 포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간의 삶의 질에 관심을 두고 사회변화를 추구하는 연구자나 정책입안자들은 이러한 억압적 요소들에 주목해야 한다.

이 연구는 사회변화를 추구하고 개인들을 보다 행복한 삶으로 이끌려는 비판과학적 시각(critical science perspective)에서 미혼남녀의 미래생활, 그 중에서도 가정생활에 관한 설계를 조망해보고자 한다. 즉 미혼남녀는 자신들의 미래생활을 어떻게 설계하고 있으며, 그러한 설계과정에서 환경의 요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미래 생활설계와 관련된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 가운데 자신이 방향성과 의지를 갖고 해결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사회가 제공해야할 지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근로자로서 미혼남녀는 과연 어떤 삶을 기획하고 있는지에 주목하여, 연구문제로 “과연 미혼 남녀근로자들은 맞벌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와 관련된 억압적인 상황은 무엇이며 그 극복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설정하고 그 답을 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은 미혼남녀근로자들을 직접 만나 면담을 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향후 미래생활 설계를 다뤄야 하는 연구의 특성상 개인의 경험을 묻는 심층면담보다, 동질적인 집단이 동의하고 있거나 집단 내 차이를 보이는 인식체계를 규명하기 위해 소집단면담(Focus Group Interview)방식의 질적 연구방법을 취하였다.

만혼화와 저출산 현상을 염려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달리 당사자인 미혼남녀가 꾸리게 될 가정에 대한 종합적 연구는 학계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해왔다. 그 동안의 미혼남성과

여성에 대한 연구는 결혼태도 및 그와 관련된 미혼남녀의 특성에 대한 연구나 조사보고서(Chang, 2005; Kim et al., 2010; Kim et al., 2012; Statistics Korea, 2012)가 있었고, 어떤 특성을 가진 미혼남녀가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가를 판별해 내는 연구들이 있었다(Kim, 2006; Kim et al., 2010; Yoo & Hyun, 2010; Kim, 2011b; Moon, 2012). 또 결혼 후 취업을 지속할 것인가를 여성들에게 묻는 연구나 맞벌이를 원하는가를 남성에게 묻는 연구들(Lee & Gu, 2008; Lee, 2009a; Auh, Cho & Koh, 2010)이 진행되었고, 결혼 후 성별분업을 주요이슈로 다룬 연구들(Kim, 2004; Park & Chun, 2011; Um & Kim, 2011a)이 있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미혼남녀근로자의 향후 가정생활과 관련하여 연구자의 편견을 내려놓고 지평을 넓히는데 도움을 주고, 이 연구가 규명할 결과의 검증과 해석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가치중립적 태도에 근거하여 현상을 기술하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삶의 질곡을 규명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변화의 방향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점이 있다. 그리고 당사자들과 함께 문제를 토의하는 과정적 방식의 연구가 부재하여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으므로, 이제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미혼 남녀에 대한 선행연구의 경향이 특정 변수에 주목하는 양적 연구의 패러다임이 우세하여, 근로현장에서의 노동경험과 주변 사람들의 삶에 대한 관찰 그리고 대중매체의 영향을 반영하면서 장차 삶의 심상을 기획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예기치 않은 고민이나 생각까지 담아내는 복잡하고 총체적인 연구결과를 찾아 보기 힘들다. 이 연구는 현 상황의 변화를 유도하려는 비판적 시각으로, 그리고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미혼남녀의 결혼에 대한 선행연구의 업적들을 보완할 뿐 아니라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촉발할 수 있는 새로운 담론 형성의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II. 선행연구고찰

여기서는 미혼 남녀(근로자)의 결혼, 가사노동 및 일에 대한 태도와 맞벌이가정을 유지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 및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조건 등을 다룬 선행연구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미혼 남녀의 다수가 결혼의향을 갖고 있고, 결혼 후에도 성별에 관계없이 직업을 갖기를 원하므로 현재 미혼 남녀 근로자는 향후 맞벌이가정을 이룰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미혼 남녀의 다수가 본인의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며(Chang, 2005; Kim, Sun, & Kim, 2010; Kim et al., 2012) 특히 미혼 남성이 미혼 여

성에 비해 결혼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고 있거나 결혼의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Kim et al., 2012; Statistics Korea, 2012). 또한 미혼남녀의 결혼에 대한 태도는 소득이나 학력, 또는 직업관련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미혼남성의 경우에는 소득과 교육수준이 높고, 직종이 높거나 상용직일 경우, 그리고 취업남성이 비취업남성에 비해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2006; Kim, 2011b; Kim et al., 2012). 이를 통해 남성들에게는 자립적인 경제수단의 확보가 결혼의 중요한 조건임을 알 수 있다. 남성과 달리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소득, 취업여부, 직업관련특성, 교육수준이 결혼에 대한 태도에 상반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선 여러 연구에서 소득이 높거나 직업지위가 높을수록, 취업을 한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결혼의향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Yoo & Hyun, 2010; Kim et al., 2012) 취업여성이나 특히 소득이 높은 여성들이 결혼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였고 일가정양립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으며(Lee et al, 2005), 결혼으로의 이행에 있어 교육, 취업과 같은 경제적 자원이 일종의 기회비용이 되기 때문으로(Yoo & Hyun, 2010) 보인다. 반면에 교육과 소득, 취업여부가 미혼여성의 결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도 있고(Kim, 2005; Kim, 2011b), 화이트칼라거나 소득이 높을 때, 또한 직업을 가진 미혼여성일수록 결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있다(Kim, Sun, & Kim, 2010; Moon, 2012). 사회경제적 지위나 경제력과 같은 개인의 결혼자원이 좋은 배우자로서의 가능성을 높게 하여 미혼여성의 결혼의향이나 결혼 가능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Kim, Sun, & Kim, 2010).

미혼여성은 결혼 후에도 계속 일을 하기를 원하였고(Lee, 2009a; Auh, Cho, & Koh, 2010), 미혼남성 역시 맞벌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정보회사 듀오의 휴먼라이프 연구소가 전국의 20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남녀 9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남성의 80.9%, 여성의 64.6%가 맞벌이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Moneytoday, 2009. 12. 22). 이는 2008년 남성의 60.5%, 여성의 47.6%과 비교할 때 크게 증가한 것이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미혼 남녀 직장인 64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서는 85.1%가 '결혼 후 맞벌이를 할 것'이라고 답했고, 맞벌이를 원한다는 응답자는 여성보다(82.0%) 남성(88.6%)에게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MKnews, 2011. 4. 14).

이와 같이 미혼남녀는 결혼 후에도 맞벌이를 원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구체적으로 출산 및 자녀양육과 관련지를 경우에는 기혼여성의 취업에 대해 다른 태도를 보여준다. 2011 사회조사보고서에서는 미혼남녀의 87%가 여성의 취업에 대해 긍정적인 경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의 60%

는 결혼이나 출산과 관계없이 일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고, 나머지 40%는 결혼 전이나 출산 전, 자녀성장 후 직업을 갖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Statistics Korea, 2011). 취업미혼 여성의 경우, 임신 및 출산 후에는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일을 그만두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68%에 달하였으며, 30대 이상 미혼여성의 45.6%가 1자녀 이상을 낳고 시간제 취업으로 일하는 것이 이상적인 자녀수와 근무형태 조합이라고 하였다(Kim et al., 2012). 전문직에 종사하는 미혼 남성은 여성의 경제적 활동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미래의 배우자가 가사 및 육아 등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적으로 자유로운 직업을 갖는 것을 선호하였으며(Auh, Cho, & Koh, 2010), 현재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들의 58.9%가 이상적인 맞벌이 부부의 취업형태로 '남편 전일제, 부인 시간제'를 희망함으로써 전일제 노동이 일반적인 우리 사회에서 반수 이상의 부부들은 부인이 자녀양육에 보다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1.5 소득자 모델'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Hong, 2011). 이러한 결과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환경 구축이¹⁾ 여전히 미흡한 여건 속에서, 여성의 취업은 수용하되 출산과 육아의 책임이 전적으로 여성에게 주어지고 있으며, 가정 내 역할조정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부부간의 역할분담에 대한 태도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미혼남성이 미혼여성에 비해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보이는 하지만(Kim et al., 2012), 최근 몇 년 간의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의 추이를 보면 부인이 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의 비중은 줄어들고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Statistics Korea, 2008; Statistics Korea, 2011; Statistics Korea, 2012). 이와 같이 전통적인 성역할에 근거한 부부간의 역할분담 태도는 많이 약화되었지만 일차적 가사담당자는 여성이, 일차적 생계담당자는 남성이라는 대답은 월등히 높아 견고한 성역할 분리 정체성을

1) 일가정양립을 위한 대표적인 방안에는 가족친화제도의 운영과 육아지원 인프라 구축이 있다. 가족친화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보급, 확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은 여성근로자의 고용규모에 비해 가족친화적 제도의 운영이 부족한 실정이며 중소기업이나 비우량기업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Lee & Kang, 2013). 또한 제도가 도입되어 있어도 근무시간, 업무량, 조직의 문화 등은 바뀌지 않고 제도사용에 대한 협조적이고 지지적인 조직의 분위기 등이 수반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제도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Yang & Shin, 2011).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보육시설은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지만 다양한 육아지원을 위한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 일례로 사업주가 요구하는 시간대에 맞추어 일해야 하는 임시직이나 일용직, 시간제 근무자 혹은 주말이나 야간에 일해야 하는 근로자는 야간보육, 휴일보육, 24시간보육, 시간제보육 등의 시간연장 보육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Lee, 2009b).

드러내고 있다(Kang, 2009; Um & Kom, 2011). 미혼여성들은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라는 견해에 대해 동의하고 있으며(Kim, Sun, & Kim, 2010; Kim et al., 2012). 배우자의 조건으로 남자의 장래가능성이나 경제적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Kim, 2004; Lee & Gu, 2008; Kim et al., 2012). 즉 남녀의 명확한 역할구분과 차별을 수용하기 어렵지만, 여전히 여성에게 요구되는 어머니 역할의 중요성과 기능적 특수성을 수용하여 자녀돌봄 적합자로 여성을 지목하는 불균형적 양상이 확인되고 있다(Kim, Sun, & Kim, 2010).

미혼의 취업여성은 결혼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하길 희망하고 일에 대한 애착은 강하지만 여전히 아이의 주된 양육자는 '엄마'여야 한다는 인식으로 일과 양육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Lee & Gu, 2008). 특히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약하거나 노동시장의 주변부에 위치한 미혼 여성들은 가정경제가 남녀 모두의 책임이라고 여기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이상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족 내 성별분업을 수용하게 된다(Kim, 2004). 일지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여대생들은 결혼을 하지 않고 자신의 일에 성취감을 느끼며 직업생활로 인한 경제적 여유를 즐기는 '골드미스'에 대해 '사회적 성취와 결혼을 병행하도록 노력하며 사는 것이 더 좋다'는 데 다수가 동의하고 있지만, 여성의 삶에서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41.5%)뿐 아니라 '훌륭한 엄마로서의 역할'(36.0%)도 중요하다고 응답함으로써 전문직업인으로서 사회적 성취에만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Park & Chun, 2011).

기혼여성의 일은 선행연구를 통해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혼여성은 취업을 함으로써 사회적 소속감과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며, 자신의 능력개발, 직업적 경력과 자아실현을 추구할 수 있다. 또한 취업에 의한 소득은 가정경제를 안정시키고 생활수준 및 생활표준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며, 나아가 남편에 대한 경제적 의존으로부터 벗어나 독립된 경제권을 획득하고, 가정경제에 기여한다는 자부심과 자존감을 얻을 수 있게 한다(André, 1987). 하지만 많은 경우 여성의 일은 남성의 일에 비해 부차적인 것, 가계에 보탬이 되는 일로 여겨진다. 여성의 일은 소득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처한 경우에 가장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방책으로 제시되는 것이다(Kim, Rhee, & Sung, 2000). 여성의 취업동기는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63.6%, 자기성취 및 발전의 기회가 22.0% 등으로 나타나고 있고(Kim, 2008, Kim, 2011b에서 재인용), 맞벌이를 하는 이유로 가장 많은 43.1%가 '외벌이만으로 도저히 가계를 꾸릴 수 없어서'이며 37.3%가 '외벌이로 가계를 꾸릴 수 있으나 여유롭게 살고 싶어서'등으로 응답하고 있어(Moneytoday, 2009. 12. 2), 실제 생계 책임자가 누구인가와는 관계없이 여성의 일은 주 생계

책임자인 남편을 돕는 보조적인 것으로 보인다.

미혼 남녀들은 맞벌이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육아부담을 언급하고 있다. 30대 이상 미혼여성의 65% 이상이 임신 및 출산 후 시간을 줄여 일하거나 그만 두기를 희망하였는데, 이유로는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어서'가 가장 많아 바람직스러웠다. 그렇지만 '아이를 맡길 시설이나 사람이 없어서' '자녀양육과 직장일을 수행할 시간부족'도 많이 있음을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판단된다(Kim et al., 201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혼 남녀들은 양육인프라의 구축과 가족친화제도 정착,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우선 양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미혼취업남성은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 직장보육시설의 확충순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미혼취업여성은 국공립보육시설보다 직장보육시설의 확충에 대한 요구도가 더 컸다. 이를 통해 미혼취업여성이 남성에 비해 출산과 자녀양육에 따른 일가정양립의 부담을 더 크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Kim et al., 2012). 또한 미혼취업남녀는 모두 일가정양립 제도 중 육아휴직에 대한 선호가 가장 두드러졌으며, 그 다음이 근로형태 유연화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과 노동시장 복귀 두 가지 정책에 대해서는 미혼남녀간의 선호도 수준에 차이를 보이는데, 미혼취업여성의 노동시장복귀 선호도는 19.6%로, 남성의 13.7%에 비해 5.9%포인트 더 높았다. 이는 미혼여성이 미혼남성보다 임신, 출산 및 양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더 심각하게 인지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Kim et al., 2012). 한편 미혼남녀들은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사회적 지원이란 사회관계망의 기능적 특성 중 하나로, 사회관계망의 구성원들이 제공하는 경제적, 정서적, 정보, 서비스 지원을 의미하는데(Muslow et al., 2001)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적 지원에는 조부모의 손자녀양육 지원이 있다. 맞벌이가정은 자녀가 어릴수록 보육시설과 같은 공적 보육체계보다는 혈연관계에 의한 사적 보육체계를 선호하며(Kim & Jeong, 2006) 만 2세 미만에게 가장 필요한 양육지원서비스 제공자로 조부모를 언급하고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2). 2012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미혼남녀 모두 가정보육보다는 시설보육을 더 선호하지만, 미혼취업남성의 19.2%, 미혼취업여성의 16.0%가 가정보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연령층과 고학력층의 미혼남성이 저연령층과 저학력층에 비해 가정보육을 더 선호하였다(Kim et al., 2012).

III. 연구방법

1. 연구의 시각과 연구문제

이 논문은 비판과학의 시각을 따라 진행하였다. 현대사회에서 평등, 독립 보다는 지배와 종속에 익숙하도록 문화적으로 변용된 개인을 해방시킬 수 있는 지식의 창출은 비판이론의 시각을 통해 선명하게 창출가능하다. 비판이론은(Kincheloe & McLaren, 2011)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고 접근하게 한 사회적·기술적 변화상황에서 자기지향(혹은 자주적 방향 설정 self-direction)과 민주적 평등주의(egalitarianism)는 재평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신과 세계를 바라보는 개인의 시각은 이전 시대에 비해 훨씬 더 많이 사회적·역사적 영향력아래 놓여있으며 그에 따라 비판이론은 개인들의 구성(construction)을 연구 분석하는 새로운 방법을 필요로 하고 질적 연구방법이 그 일환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비판주의 과학의 목적인 사회개혁은 사회구성원의 일상적 삶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Yang(2007)은 Schwandt(1997)가 말하는 비판과학의 특징을 첫째, 사회구성원들에게 개인의 신념체계와 사회적 관행 속에 실재하는 모순을 인지, 부조리를 변화시키고자 고무하며, 둘째, 가치중립적 태도를 지양하고 개인과 사회의 변화방식을 다루는 규범이론을 다루며, 셋째, 도구적·기술적 추론을 배격하고, 도덕적·윤리적·실용적·정치적 추론을 사용하고, 넷째, 개인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인간이성의 힘을 신뢰, 자아지식과 사회적·정치적 행동을 고양시키려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비판주의과학의 시각에서 연구자는 미혼근로자들이 생활을 주도하고자 할 때, 느끼는 억압을 드러내고 그러한 억압적 현실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변화 방식을 제시하며 이러한 변화에 관한 사회적 논쟁을 촉발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에 연구의 결과물을 통해 구체적 해결책을 정책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

이러한 비판과학적 목적에 따라 미혼근로자들이 생각하는 맞벌이 삶은 어떠하며 그 삶에 관련된 억압적 요소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러한 억압적이고 모순적인 상황에서 그들을 해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또한 연구문제를 위해 다음 다섯 가지 질문을 인터뷰질문으로 사용하여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로 표현)을 실시하였는데,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맞벌이 부부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 이상적인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그려지십니까?
- 어떤 조건에서 이상적인 맞벌이 부부가 가능합니까?
- 이상적인 맞벌이부부의 장애요인은 무엇입니까?

- 장애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2. 자료의 수집과 분석

자료는 2013년 1월부터 2월에 걸쳐 매주 한 집단씩 면담하여 수집하였다. 면담 전에 E-Mail을 통하여 연구의 목적과 진행방식을 고지하고 연구참여동의서와 위의 다섯 가지 FGI 질문가이드를 전달하였으며, 직장의 이름과 직위, 월평균소득과 근무시간 및 주말 휴무, 결혼 후 희망 가계소득, 희망하는 자녀수, 맞벌이 희망여부를 조사하였다. FGI는 남녀 근로자 각 두 명씩 총 네 명으로 한 집단을 구성하여 총 다섯 집단을 실시함에 따라, 총 20명의 근로자가 면담에 포함되었다. FGI에는 보조연구자가 연구자와 동행하여 면담종료 후 면담내용을 함께 논의하고 정리하였으며, 모든 내용은 참여자 동의하에 녹취하고 전사하였다. 연구참여자 i, j, k, l로 된 세 번째 집단은 토요일 오후에 그리고 나머지 네 집단은 평일 저녁 퇴근 후에 세 시간에 걸쳐 FGI를 실시하였고, 녹취 자료는 집단에 따라 1시간 57분에서 2시간 8분까지의 분량으로서 전문속기사가 전사하였다.

패튼은 방대한 자료를 정리하고, 요약된 압축적 자료로 변환하며, 자료 속에서 유형과 주제를 발견하는 작업을 분석이라고 하였다(Kim, 2012, 재인용). 이 연구는 이러한 분석의 과정을 마일스와 휴버만(1984)의 표현을 빌면 자료의 선정과 응축 범주화 주제로 세분화하는 자료감소단계, 자료의 의미를 잘 나타내기 위해 간추린 자료를 응축적으로 배열하는 단계, 그리고 배열된 자료로부터 의미를 도출하는 단계로 진행하였다. 1차 분석은 문장을 세분하여 내용(text)을 압축하고, 2차 분석에서 주제를 추출하였다(Kim, 2012, 재인용). 결과적으로 미혼근로자들이 가진 맞벌이가정의 심상에서 핵심적인 주제는 여성의 취업노동, 맞벌이가정의 가사노동 그리고 맞벌이가정의 이상적 조건이었다.

연구자는 연구의 내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삼각측정(triangulation)을 실시하였다. 두 사람의 연구자가 FGI에 참여하고, 수집한 자료 분석에 참여하는 '연구자 통합'을 사용하여 연구 대상에 대한 탐색과 이해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특히 감정적인 결과는 동료 검증(peer debriefing)을 실시하여 비평을 얻어내고 참조하여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으로 인한 오류를 최소화하였다.

3. 연구참여자

이 연구에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미혼 남녀 근로자 10명씩 모두 20명이 FGI에 참여하였다. 비판과학적 연구는 참여자 선정 시 유사한 상황에서 유사한 억압경험을 공유하는 자가 핵심(Yang, 2007)이므로 의도적 표본추출전략 중 기준

표본 추출 전략(criterion sampling strategy)으로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는데 기준으로 사용한 것은 미혼근로자 그리고 주당 40시간이상 전일제근무자, 혹은 최소한 전일제근무경험을 가진 근무자로 하고 교사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을 배제한 미혼남녀근로자의 상황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연구

자는 연구참여자를 여러 경로를 통해 소개받았으며 기꺼이 연구의 목적에 동의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선정하였다. <Table 1>은 연구참여자의 주요 특성들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참여자 가운데 i는 간호사로 근무하다 힘들어서 그만

Table 1. Participant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Partici- pants (age)	Sex	Job	Types of employee	Monthly average income (10,000 won)	Weekly working hours (hr)	Lifestyle they want to have after marriage	Family income they want to get after marriage	Number of children they want to have
a(33)	F	office-worker (small and medium size company)	Regular	350	50	dual-earner family	700	1 daughter
b(32)	F	librarian (elementary school)	Regular	250	40	single-earner family	700	3
c(30)	M	office-worker (small and medium size company)	Regular	240	45	dual-earner family	600	1 son & 1 daughter
d(32)	M	office-worker (small and medium size company)	Regular	200	45	dual-earner family	450	1 daughter
e(31)	F	office-worker (small and medium size company)	Regular	150	40	dual-earner family	350	1 son & 1 daughter
f(32)	F	office-worker (small and medium size company)	Regular	150	40	dual-earner family	450	1 son & 1 daughter
g(31)	M	office-worker (small and medium size company)	Regular	200	40	dual-earner family	400	1 son & 1 daughter
h(30)	M	office-worker (small and medium size company)	Regular	200	40	dual-earner family	300	1 son & 1 daughter
i(26)	F	nurse (small and medium size hospital)	Part-time	50	25	single-earner family	400	2~3
j(21)	F	office-worker (bank)	Irregular	130	65	dual-earner family	300	1 son & 1 daughter
k(38)	M	office-worker (small and medium size company)	Regular	170	40	dual-earner family	500	1 son & 1 daughter
l(26)	M	office-worker (small and medium size company)	Regular	170	40	dual-earner family	400	1 son & 1 daughter
m(29)	F	official (middle school)	Irregular	180	40	dual-earner family	500	1 son & 1 daughter
n(31)	F	official (middle school)	Irregular	150	40	dual-earner family	400~500	1 son & 1 daughter
o(28)	M	office-worker (small and medium size company)	Regular	200	60	dual-earner family	400~500	1 son & 1 daughter
p(34)	M	office-worker (small and medium size company)	Regular	300	50	dual-earner family	500	1 son & 1 daughter
q(29)	F	official (court)	Irregular	180	45	dual-earner family	400~500	2 daughters or 1 son & 1 daughter
r(28)	F	official (court)	Irregular	135	45	dual-earner family	400	1 son & 2 daughters
s(30)	M	office-worker (non-profit company)	Irregular	178	50	dual-earner family	300	1 son & 1 daughter
t(35)	M	official (court)	Regular	250	45	dual-earner family	400	1 son & 1 daughter

두고 직장을 전환하는 중에 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었고, 나머지 19명은 모두 주 40시간이상 65시간까지 주5일 이상 전일제로 근무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의 직종을 보면 중소기업근로자가 11명(a, c, d, e, f, g, h, k, l, o, p), 은행원이 1명(j), 초등학교 사서 1명(b), 공립 중학교 행정직 공무원 2명(m, n), 법원사무직 공무원 3명(q, r, t), 그리고 비영리기관 종사자 1명(s)이 포함되었다. 월평균소득의 경우 시간제 근로자 i는 50만원이었으며, 나머지 전일제 근로자는 j(고졸 은행 계약직 여성근로자)의 130만원으로부터 a(중소기업 대리인 여성근로자)의 350만원까지 분포되어 있다.

연구참여자 대부분은 맞벌이를 희망하였는데, 다만 아내의 취업을 원하지 않는 고소득의 남성을 만나 결혼이 임박한 사례 b, 간호사로 힘든 3교대 근무를 하다가 직업을 전환 중인 사례 i만이 맞벌이를 희망하지 않았다. 이들이 원하는 희망가계소득을 보면, 최소 300만원에서 최고 700만원에 이르며, 현재 개인소득과 비교하면 최소 h의 1.5배에서 f와 n의 3배에 해당한다. 희망자녀 수는 1자녀를 원하는 경우가 2명, 2자녀를 원하는 경우가 14명, 3자녀를 원하는 경우가 4명이다.

IV. 연구결과

이 연구의 핵심적인 주제는 미혼근로자들이 자신들의 미래인 결혼과 가정생활에 관해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전망하고 있는지, 특히 고용의 불안정성 확대와 경제적 안정의 욕구가 맞물려 부부가 함께 경제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는 점에서, 미혼근로자들의 맞벌이에 관한 심상, 맞벌이의 어려움과 해결방안에 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연구참여자들의 면담자료를 분석한 결과, 맞벌이가정의 심상, 여성취업과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 그리고 맞벌이가정이 처할 도전과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이상적 조건의 4가지 영역으로 범주화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의 면담내용을 영역별로 심층 분석하여 총 40개의 소주제로 범주화하고, 소주제별 특징을 다시 범주화하여 총16개의 주제를 산출하였다(<Table 2> 참조).

먼저, 맞벌이가정의 심상 영역에는 맞벌이가정에 대한 다양한 정의, 맞벌이의 당위성, 여성의 선택과 부부합의에 의한 생활양식이라는 세 주제가 도출되었다. 둘째, 맞벌이가정 여성의 취업노동 영역에는 생계유지 및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강제적 취업이라는 두 가지 주제가 도출되었다. 셋째, 맞벌이가정의 가사노동 영역에는 남성들 가사분담 수용, 가사분담의 현실적 어려움, 여성에게 불리한 불평등한 가사분담, 젠더화된 사회; 여성-가정 남성-일터로 집중이라는 주제가 도출되었다. 끝으로 맞벌이가정의 이상적 조건 영역에는 부부의 일자리 보장과 경제력 확보, 국가의 자녀양육지원, 맞

벌이부부의 능동적 조정, 육아휴직제도 개선, 일터를 양육친화적으로 변경하기라는 다섯 가지 주제가 도출되었다. 각 주제의 하위 소주제는 다음 각 절에서 소주제를 도출하게 된 면담내용과 더불어 제시할 것이다.

1. 미혼근로자들이 본 맞벌이가정의 심상

미혼근로자들이 맞벌이부부를 어떻게 정의하며 어떤 모습으로 맞벌이가정을 떠올리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FGI를 통하여 얻은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13개의 소주제²⁾로 압축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맞벌이가정에 대한 심상과 이미지에 관한 4개의 주제를 추출하였다. 4개의 주제는 맞벌이가정에 대한 다양한 정의, 맞벌이의 당위성, 여성의 선택과 부부합의에 의한 생활양식 전업주부가정과 비교할 때 힘든 삶이었다.

1) 맞벌이가정에 대한 다양한 정의

미혼근로자들은 맞벌이에 대한 정의나 이미지에 관해 매우 다양한 의견을 보였는데 이는 네 개의 소주제로 범주화되었다. 즉 일의 형태에 관계없이 부부가 함께 돈을 벌면 무조건 맞벌이라고 생각하는 연구참여자로부터 부인이 반드시 가정 밖에 직업이 있어야 맞벌이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그 범위가 매우 넓다. 또한 자녀가 있어야 맞벌이라고 생각하는 연구참여자도 있었는데, 이는 자녀출산과 양육이 기혼여성의 취업중단의 중요한 걸림돌이므로 이를 극복하고 취업을 지속하는 경우에만 진정한 의미의 맞벌이로 인정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맞벌이가정의 여건과 상황, 특히 기혼여성의 취업 동기나 직업지위 등을 고려하여 생계형과 전문직 맞벌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연구참여자가 있는 반면, 그 가운데 생계형만 맞벌이로 간주하는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의견은 미혼근로자 본인의 현재 직업지위, 노동경험, 그리고 주변의 준거집단 등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정의와 의견은 향후 본인의 실질적 결혼과 가정생활을 결정하게 될 주요 요인이기도 하지만, 실제 결혼과 가정생활을 통해 변용될 수 있는 것이다.

▶ 소주제 : 함께 돈을 벌면 맞벌이

- 함께 돈을 벌면 시간에 상관없이 맞벌이 i
- 부부가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것 p, s
- 꼭 직장이 아니라도 돈벌이 하는 것(아내의 가내 부업 포함) s, 프리랜서까지 포함 t

2) 소주제는 면담내용에 따라 범주화하였으며, 면담내용은 각각의 소주제 아래에 제시하였다.

Table 2. Theme by area and sub-theme

Area	Sub-theme	Theme
Image of a dual-earner family seen by unmarried workers	If a couple earns money together, it's a dual-earner family.	Various definition of a dual-earner family
	If a wife has a job outside, it's a dual-earner family.	
	If a couple has children, it's a dual-earner family.	
	There are two classes in dual-earner families.	Justification of a dual-earner family
	It is difficult for husband to support the family by himself.	
	Supplement the family incom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Lifestyle by women's choices and couple's agreement
	Lifestyle that is inevitable and essential.	
	Lifestyle that determined by the choice of women	
	Lifestyle that men find it difficult to choose	
	Lifestyle that is unfavorable to children	Hard life, comparing with full-time housewife's family
	After work, married women go back to another workplace - that of their family.	
Different life from others		
Hard life for a couple		
Woman's market labor of a dual-earner family seen by unmarried workers	It Supplements husband's insufficient income for a living.	Compulsory work for living maintenance and improving the standard of living
	For married women, it's hard work and backbreaker. They have no choice to decide whether to go on working.	
	Optional thing (What the husband with economic power stops) (What the wife whose husband without economic power sticks to)	Temporary and selective work
	Temporary thing	
	It enables married women to secure her personal life.	
It brings equality between couples.	Means of developing personal identity	
Housework of a dual-earner family seen by unmarried workers	Sharing housework is dual-earner men's obligation	Men, accepting housework sharing
	Housework sharing is struggling.	practical difficulties in housework sharing
	The reasonable ways of sharing housework are absent.	
	Person in charge of housework is women, men is assistant	Inequitable division of housework that is unfavorable to women
	The burden is too heavy to women. It may lead to marital conflict.	
Vicious circle of gendered division of labor	Gendered society; women-family, Men-work focused	
Ideal conditions of a dual-earner family thought by unmarried workers	Stable and sufficient income	Job security and sufficient income
	Employment and re-employment opportunity for married women	
	Favorable work to married women	
	Support from outside the family	Childcare support by government
	Improvement on the managerial method of child-care facilities	
	Governmental support system for child-care facilities	
	Personality education for child, educational expense support from government and company	
	Counseling services, providing information and training to parents	Active adjustment of the dual-earner family
	Marital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Equitable housework sharing	Improvement of child-care leave system
	Child-care leave system that is available for men and women	
Governmental supports for child-care leave system		
Improvement in working conditions	Family-friendly workplace	
Minimization overtime works and staff gatherings		
Family-friendly atmosphere in the organization		

- ▶ 소주제 : 부인의 가정 밖 직업이 있어야 맞벌이
 - 간헐적인 일 말고, 여성이 전문적으로 자기일 하는 것 j
 - 부부가 각자 직업가지고 경제력 갖추는 것 m
 - full time, part time 모두 아내가 밖에서 일하는 것 k
- ▶ 소주제 : 자녀가 있어야 맞벌이가정
 - 자녀가 생기고부터 진정한 맞벌이 t
 - 자녀양육으로 갈등발생하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가정, 즉 자녀가 있어야만 맞벌이 r
- ▶ 소주제 : 맞벌이가정 안에 두 계층
 - 생계형과 전문직 맞벌이로 나뉘는 m
 - 생계형만 맞벌이 n

2) 맞벌이의 당위성

연구참여자들은 현재 자신의 소득에 비해 최소 1.5배(h, 현재소득 200만원, 희망 가계소득 300만원)에서 최대3배(f와 n, 현재소득 150만원, 희망 가계소득 450만원)의 가계소득을 희망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의 대부분은 맞벌이를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단지 간호사를 그만 두고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연구참여자 i만이 최소생활만 되어도 맞벌이를 하고 싶지 않다거나 월 소득 500만원이 넘는 남편과 결혼하여 당분간 전업주부를 하겠다는 연구참여자 b만이 맞벌이를 희망하지 않는 예외의 경우였다. 맞벌이를 해야 하는 이유는 남편 혼자 벌어서는 생활비가 부족하므로 최소생활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득을 증대시키고 저축을 할 수 있는 경제력 보완방법이 맞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생활이 불가능하고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 대부분이 맞벌이를 하는, 즉 현대사회에서 맞벌이는 필수적인 생활양식으로 수용하였다. 이제 맞벌이는 미혼남녀가 전망하는 대세적 생활양식이 되었으므로, 기혼여성의 과반수 정도만이 취업하고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생활양식이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 ▶ 소주제 : 남편 혼자 벌어서는 부족한 생활비
 - 남편의 경제력 부족을 의미 c, k
 - 남편 경제력이 된다면 아내가 일하지 않아도 되는 것 l, s
 - 돈이 많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 따라서 대부분 사람들의 삶 i, k, o
 - 남편의 가변적 수입활동 보완 k, j
- ▶ 소주제 : 경제력 보완, 삶의 질 향상

- 최소생활 유지 a
- 수입증가 c, 저축가능 d
- (자녀)삶의 질 향상 d, l / 더 나은 경제생활 위해 치열한 삶 f
- 혼자 버는 집보다 경제적 우위(경제력 있는 혼자 버는 집 남편의 우위성을 부부가 극복함) l
- 신혼 초기 곧, 걸음마단계에 기초 놓는 것 o

- ▶ 소주제 : 불가피한 필수적 생활양식
 - 현대사회에서 필수적인 것 d
 - 주변에 평범한 사람들 대부분 맞벌이 k
 - 원해서 하는 사람이 없음 k
 - 맞벌이 하지 않으면 생활 불가능, 불가피 r
 - 생계형만 맞벌이 n
 - 돈 때문에 얽매이는 것 f

3) 여성의 선택과 부부합의에 의한 생활양식

맞벌이에 대한 미혼근로자의 심상 가운데 흥미로운 것은 맞벌이를 결정하는 의사결정방식의 차이이다. 연구참여자들의 면담내용을 보면, 맞벌이는 최소생활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강제적 선택의 문제이지만, 남성참여자의 입장에서 볼 때 맞벌이의 선택은 궁극적으로 여성이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즉 여성의 동의가 없다면 원해도 할 수 없는 생활양식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선택의 특성은 한 편에 육아와 가사노동이라는 요구가 있고 다른 한 편에 성차별적인 여성노동시장이 있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맞벌이의 선택이 여성 개인의 자아성취 동기에 의한 것이라면, 여성이 맞벌이를 하고 싶어도 남편이 허락을 해야만 가능한, 부부 상호간의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남편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크고 여성의 개인적 동기에 의한 취업의향이 큰 경우 여성의 취업은 좌절되기 쉽고, 맞벌이 생활양식은 선택되지 않을 것이다.

- ▶ 소주제 : 여성의 선택에 의해 결정됨
 - 최소생활 유지 위해 여성이 자발적으로 선택 a
 - 선택할 수 있는 일 b
 - 남편은 돈벌이가 필수. 아내는 선택 d
 - 여성이 개인적 성취와 경제적 조건마련 위해서 하는 삶 c, k, h
 - 욕심 부리는 삶,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삶 h
 - 여성들의 개인적 욕구에 의해 결정되는 생활방식 o
- ▶ 소주제 : 남성이 선택하기 어려운 생활양식
 - 부부가 합의해야 가능한 생활방식, 원해도 할 수 없는 생활방식(남편의 허락/강요 對 아내의 의지/저항) p

4) 전업주부가정과 비교할 때 힘든 삶

맞벌이가정에 관한 연구참여자들의 심상은 앞서의 세 가지 측면 이외에, 맞벌이의 삶 자체가 힘든 삶으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전업주부가정을 준거로 하여 다양한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첫째, 맞벌이가정은 자녀의 일상적 돌봄 뿐 아니라 질병과 같은 긴급 상황에서의 돌봄이 어렵기 때문에 자녀에게 애정이 결핍되기 쉽고, 또한 여성은 일과 가정의 이중부담을 겪으며, 남성도 역시 가사부담이 증가하고 직장에서도 남과 다르게 살아야하며, 자녀양육을 둘러싸고 자녀양육을 돕는 보조양육자나 보육시설의 종사자들을 포함한 가족 외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원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여 상당히 많은 가정이 전업주부가정으로 살기 때문에, 미혼근로자들은 장차 꾸리게 될 자신의 맞벌이 삶을 다른 삶과 비교하게 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혼자 버는 삶을 마치 선택 가능한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맞벌이 삶이 대세가 된다면, 맞벌이가 아닌 경우와 비교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맞벌이 생활양식 안에서 삶을 개선할 방향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 소주제 : 자녀에게 불리한 생활방식
 - 자녀에게 좋지 않은 것 f
 - 맞벌이는 아예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것 l
 - 어린 자녀들이 필요한 사랑을 못 받는 가정 s
 - 부부의 스케줄 고정, 틀에 짜여서 자녀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태 발생 시 대처할 여유가 부족함 t
- ▶ 소주제 : 여성에게 집을 또 하나의 일터로 만드는 것
 - 맞벌이하는 여성에게 집이 제2의 일터가 됨 a
- ▶ 소주제 : 가정과 직장에서의 남다른 생활
 - 남편에게 가사부담이 증가하는 것, 남자들의 직장생활패턴을 변경시키는 것(술 안 먹고 집에 가서 아이 기르는 날) s
 - 차 가진 남편이 주로 자녀 픽업, 직장동료가 볼 때 사 회성 저하됨 s
- ▶ 소주제 : 부부에게는 힘든 삶
 - 자녀가 생기면 힘든 삶, 갈등이 많은 삶 g
 - 부부가 보조양육자/시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는 삶 s

2. 미혼근로자가 생각하는 맞벌이가정 여성의 취업노동 미혼남녀근로자들이 맞벌이가정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는

가에 대한 두 번째 주제는 여성의 취업노동이다. 연구참여자들의 응답내용을 분석하여 여섯 개의 소주제를 추출하였고 다시 관련성이 높은 소주제를 묶어 세 개의 주제를 산출하였다. 세 개의 주제는 생계유지 및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강제적 취업과 임시적이며 선택적인 취업 그리고 개인적 정체성 기획의 수단이었다.

1) 생계유지 및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강제적 취업

맞벌이가정의 여성취업은 일정한 생활수준에 도달하려는 부부가 볼 때, 경제력이 부족한 남편의 수입을 보완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취업하지 않으면 남편과 시댁 눈치가 보이는 것(b)”이라는 표현에서와 같이 미혼여성들이 느끼는 취업 압력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남녀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기혼여성의 취업이 여성에게 힘든 것이며, 결혼을 통해 벗어나고 싶은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여성근로자들은 취업하지 않아도 될 만한 배우자를 만나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았는데, 간호사출신 연구참여자는 많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하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 취업이라고 했으며, 고소득 남성을 만나 곧 결혼하면 취업을 면하게 될 여성근로자(b)는 다른 연구참여자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 이와 같은 취업의 어려움은 일 그 자체의 어려움도 있으나, 결혼에 따른 가정의 요구가 여성들에게 집중됨으로써 일을 지속하기 힘들다는 점을 포함하였다.

- ▶ 소주제 : 생계 혹은 일정한 생활수준 확보위해 남편의 부족한 경제력 보완, 불가피한 것
 - 남편의 경제적 능력부족을 보충 c
 - 경제력이 부족한 남편의 아내가 마땅히 하게 되는 것 d
 - 남편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 k
 - 생계를 위한 것 m
 - 일정한 생활수준의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수단 o
 - 하지 않으면, 남편과 시댁의 눈치가 보임 b
- ▶ 소주제 : 기혼여성에게 힘든 것, 피하고 싶은 고역. 당사자가 지속여부, 직장 내 위치 고수하기 어려운 것
 - 남편·아내 모두 하기 싫은 것(맞벌이) g
 - 기혼여성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 g
 - 많이 벌지 않더라도 한 사람이 벌어서 생활이 가능하다면, 경제력 있는 남자 만나면 하고 싶지 않은 것(3교대 근무, 힘든 간호사 일에 염증느낌) i
 - 남자를 잘 만나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 m
 - 결혼 통해 벗어나고 싶은 고역(苦役) “취직” h
 - 결혼의 현실에서 지속하기 힘든 일 a
 - 임신과 출산 후 복귀하면 회사가 그 위치를 보장해주기 어렵다고 입사 시 조건 계약 f

2) 임시적이며 선택적인 취업

맞벌이가정의 여성취업은 앞에서 살펴본 불가피성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선택적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즉 남성근로자들은 여성 취업이 남편이 하도록 시킬 수도 있고 하지 말라고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이것은 언제나 남편의 경제력에 달려있는 사안이며, 궁극적 선택은 당사자인 여성이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남성근로자들은 여성취업을 임시적인 것으로 거론하고 있는데, 결혼 초,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리고 남자가 가계를 책임질 수 있을 때까지 기반을 닦는 정도로 생각하였다. 이는 여전히 성별분업에 기반을 둔 일인소득가계를 전형으로 여기는 남성근로자 사고를 반영하는 동시에 취업과 자녀양육을 함께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 ▶ 소주제 : 선택적인 것(경제력 있는 남편이 말할 수 있는 것, 경제력 없는 남편의 부인이 고수할 수 있는 것)
- 남편이 하도록 시킬 수도 있고, 하지 말라고 말할 수도 있는 일 c
- 그만 두는 것은 아내가 정하는 것 g
- 남편도 시키기 싫은 것 o
- 아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것 h
- ▶ 소주제 : 임시적인 것
- 아이를 낳을 때까지만 하면 좋은 것 k
- 결혼 초기에 기반을 닦는데 필요한 것 o
- 남자가 혼자 가계를 책임질 수 있을 때까지만 하는 것 o

3) 개인적 정체성 기획의 수단으로서의 취업

연구참여자들은 여성취업을 전업주부와 달리 개인적인 시간과 공간 그리고 경제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고 개인적 성취도 이룰 수 있게 하는 수단으로 생각하였다. 특히 개인적인 소비지출의 재량은 여성성을 가꾸고 자기계발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하였다. 그 뿐 아니라 취업생활은 남편과 유사한 경험을 하게 해주며, 여성에게 경제적 독립성을 부여함으로써 부부간의 동등성을 확보해주는 중요한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여성의 취업은 유사한 조건의 남성과 결혼하여 일정한 생활수준을 확보하게 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선행연구 고찰에서와 같이 여성의 취업이 더 좋은 결혼을 위한 자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논의와 같은 맥락의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의미에서 기혼여성의 취업은 사회적으로 그리고 결혼관계에서 개인적 정체성을 기획하고 긍정적인 자아감을 유지하게 하는 수단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남성은 여성취업을 임시적인 것으로 여기는 반면, 여성은 어렵더라도 고수하고 싶은 것으로 여겨 미래 맞벌이가정안에서도 이

지점에서 부부간 갈등이 상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 소주제 : 기혼여성의 개인생활 확보
- 육아와 가사라는 전업주부의 답답함, 탈출구 c
- 개인생활시간과 공간 확보 수단 g
- 여성의 개인적 성취를 위한 것 o
- 여성 개인의 경제적 여건 마련 l
- 여성들이 힘겹게 고수하려는 생활양식;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면서도 가정도 돕는 것 g
- 경제외적 이득 얻는 수단 ; 사회적 지위, 희망 h 여성성도 가꾸고 자기 계발하는 것 p
- ▶ 소주제 : 부부평등 조건 산출
- 바깥 생활의 재미 등 부부 동등함 확보 수단 k
- 비슷한 조건의 남녀, 결혼할 수 있게 해 주는 것 d
- 직업 통해 자신의 일과 자기 계발하여 남편과 유사하게 하는 수단 i
- 남편에게 경제적 독립 수단 a

3. 미혼근로자가 생각하는 맞벌이가정의 가사노동

맞벌이가정의 삶에 관한 FGI에서 추출한 세 번째 주제는 가사노동이다. 연구참여자들의 응답내용을 분석하여 여섯 개의 소주제를 추출하였고 이 소주제는 다시 네 개의 압축된 주제로 산출되었다. 네 개의 주제는 남성들, 가사분담 수용 그리고 가사분담의 현실적 어려움, 여성에게 불리한 불평등한 가사분담, 젠더화된 사회, 여성-가정 남성-일터로 집중 이었다.

1) 남성들, 가사분담 수용

먼저, 남성연구참여자들은 맞벌이가정의 경우 남성이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전업주부가정에서도 남성이 도울 일이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남성들의 가사참여는 의무로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남녀 간의 가사분담이 증가추세라는 점에 입을 모았는데, 가사분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남성이 늘어났을 뿐 아니라 과거에 비해 실제로 가사분담을 하는 남성도 증가추세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맞벌이 남편이 '조금이라도(k)', 또는 '반 정도는 아니더라도 한 역할 해야 한다(t)'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미혼 남성들 역시 가사의 절반을 책임진다는 적극적 생각보다는 여전히 부분적 기여에 그치는 소극적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 소주제 : 가사분담, 맞벌이남성들의 의무
- 맞벌이 남편이 반드시 조금이라도 해야 하는 일 k

- 전업주부가정에서도 남자가 도울 일이 있음 k
- 맞벌이 하면 공유하는 것이 맞음 t
- 반 정도는 아니더라도 여성분들이 가사 할 때 한 역할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남자 많이 봄 t
- 세탁(빨기, 널기)돕는 남성 증가, 남·여간 가사분담은 점차 개선 중 s

2) 가사분담의 현실적 어려움

가사분담의 현실적 어려움은 두 가지 방향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여성참여자들은 모두 가사분담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역설하였다. 그래서 가사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인내로 남성을 길들여야 하며, 결혼 전에 가사분담에 대해 일정한 협약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남성근로자들도 가사분담이 현실에서 결코 쉽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가사분담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남성과 여성은 매우 상이한 반응을 보였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여성근로자 f는 부부간에 공평성을 확보하려면 가사분담을 적게 한 남편이 여성에게 보상해야한다고 했고, 이에 반해 남성근로자 k는 가사분담이 실패할 경우 돈벌이가 잘 되는 (현실적으로는 남성)배우자가 취업노동을, 돈벌이가 적은 (현실적으로는 여성)배우자가 가사노동을 맡아야 한다(k)는 전통적 성별분업 의식을 표출하였다. 또한 남성근로자 g는 가사노동에도 남녀 간에 전문적 분야가 있고, 남성은 상대적으로 가정 밖 가사노동을 많이 하므로 공평하다고 반박하기도 하였다.

둘째, 연구에 참여한 미혼 남녀근로자들은 가사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 모두 그들 내부의 공유된 특별한 규칙을 드러내지는 못했고, 남성과 여성 간 전문화된 영역에 따라 50%씩 분담해야한다던가, 또는 가용시간이나 피로 정도에 따라 항상 협상하여 융통성 있게 분담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였다. 이는 각 가정의 가사분담이 부부간 협상 방식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관성에 따라 기존의 성별분업의 틀을 탈피하기 어려움을 의미하기도 한다.

- ▶ 소주제 : 가사분담은 苦鬪
- 분담을 제대로 하려면 여성이 남성을 인내로 길들여야 하는 것 i
- 가사분담, 서로 맞춰서 결혼 전에 정해놓아야 하는 것 n
- 가정 내 가사노동, 여성이 더 많고, 가정 밖 가사노동 남성이 더 많음 g
- 부부 공평성 확보위해 남편이 다른 것으로 보상해야 하는 부분. 왜냐면, 분담 잘 안되므로 f
- 가사분담이 잘 안되면 벌이가 큰 쪽이 벌고 벌이가

적은 쪽이 맡아야 하는 일 k

- ▶ 소주제 : 합리적 가사분담방식 부재
- 50%씩 분담해야하는 것, 그러나 영역별로 전문화된 영역이 있음 g
- 시간사정이나 피로감이 시시때때로 다르므로 남녀 구분 없이 융통성 있게 나누면 좋겠음 l

3) 여성에게 불리한 불평등한 가사분담

미혼근로자들이 생각하는 가사노동의 세 번째 주제는 여성에게 불리한 불평등한 가사분담이었다. 남성참여자들은 가사의 주요 책임자가 여성이고 남성은 보조자라는 생각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반면 여성참여자들은 그러한 남성들의 생각과 그에 따른 행동에 대해, 여성들 스스로 더 많이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패배주의적 수용’태도를 보였다. 남성의 가사참여와 분담의 증가가 현재의 대세라고 생각하는 남성참여자들의 경우 가사분담의 변화과정에서 가사의 주책임자(“main”)인 여성이 남성의 가사분담을 인정하고 칭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성참여자들은 남성들이 가사분담은 조금 하고 생색내기를 좋아하며 가사분담이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남녀근로자가 함께 참여하는 면담과정에서 여성이 가사의 주책임자이고 남성이 보조자라는 생각에 여성들이 분개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는 남성근로자들도 있었다(g, n). 맞벌이가정의 불공평한 가사분담은 여성근로자가 보기에 기혼여성에게 짐의 의미를 제2의 일터로 만들게 하고(a), 힘을 얻기 위한 결혼이 아니라 짐을 떠맡는 것으로 만들며(m), 이러한 불공평한 가사분담으로 인해 부부갈등이 유발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여성에게 불리한 불평등한 가사분담은 결국 과중한 이중부담과 더불어 경력단절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여성에게뿐 아니라 맞벌이가정 전체에게도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

- ▶ 소주제 : 주요 책임자는 여성, 남성은 보조자
- 안 일은 여자가 메인이라고 남자들이 생각하는 것 a
- 예전부터 여성이 전담, 남성은 도움, 남자들은 보조 ‘도와주는 것’ a, r
- 여자들도 자신이 더 많이 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 a
- 많은 남자들이 도와주지 않는 것, 남자들이 ‘내 일이 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q
- 운전이나 장보기 무거운 것 들기 등 바깥일은 남자가 많이 함 g
- 남자들이 하고나서 생색내는 것.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것 q
- 아내로부터 인정·칭찬 받고 싶은 분야 t

- ▶ 소주제 : 여성에게 부담 가중, 부부간 갈등 유발
- 기혼여성에게 제2의 일터가 되게 하는 것 a
- “힘이 되려는 결혼을 짐이 되게 하는 것”. 기혼여성에게 짐 m
- 분담이 잘 안되면 부부갈등을 유발 m

4) 젠더화된 사회, 여성-가정, 남성-일터로 집중

연구참여자들은 가사분담의 불평등성에 내재된 성별분업 양상이 가정단위를 넘어서서 사회적 현상이라는 점에 관해 주변에서 관찰된 관행들을 중심으로 언급하였다. 남성근로자는 결혼하면 여성은 잘린다(o)고 표현하였으며, 중소병원 간호사로 일한 여성근로자 i는 출산지연을 입직조건으로 하여 계약한 관행을, 제과회사 근무자인 여성근로자 f는 출산 휴가를 보내고 복귀하면 자신의 일자리로 돌아갈 수 없다는 조건에 동의하고 입사계약을 했던 관행을 보고하였다. 또한 남성근로자 k가 보기에, 여성은 야근과 회식에서 배제되며 남성은 회식과 야근을 가정사보다 우선시함으로써 ‘여성은 가정, 남성은 일’로 성별 배치가 강화된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젠더화된 사회를 바라보는 미혼근로자들은 자신들의 미래 삶에 대해서도 개혁적 전망보다는 소극적으로 수용하고 내면화할 수밖에 없으나, 이런 점을 문제로 여기고 있으며, 한 개인의 차원에서는 그 타파가 힘들지만 반드시 변화되어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연구자와 정책입안자들은 이 점에 주목하여 개인들의 한계를 넘어서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 소주제 : 가사노동과 노동시장에서 성별분업의 악순환
- 한국사회가 남녀에게 각각 따로 기대하는 것 “여자가 메인, 남자는 도우미” a
- 가사노동 성별분업관념은 야근·회식 같은 직장문화에도 영향 끼침 k
- 결혼하면 잘림(가사와 육아는 직장일에 방해가 된다고 인식됨) o
- 임신과 출산 후 복귀하면 회사가 그 위치를 보장해 주기 어렵다고 입사 시 조건 계약 f
- 2년간 출산하지 않기로 계약함 i

4. 미혼근로자가 생각하는 맞벌이가정의 이상적 조건

맞벌이가정의 이상적 삶의 조건은 무엇인지, 또는 장애 조건은 무엇이며 이를 극복할 방안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다각도의 다양한 질문을 하였다. 그 응답내용을 코딩 혹은 역으로 코딩하고 분석하여 15개 소주제를 추출하였고, 다시 분류하여 최종 5개의 주제로 압축하였다. 다섯 개의 주제는 부부의 일 보장과 경제력 확보, 국가의 자녀양육지원, 맞

벌이 부부의 능동적 조정, 육아휴직제도 개선 및 일터를 양육친화적으로 변경하기이다.

1) 부부의 일 보장과 경제력 확보

미혼근로자들에게 맞벌이가정의 우선적인 이상적 조건은 충분한 소득의 안정적 확보이다. 여기서의 충분한 소득이란 자녀출산 후 재가 대리 양육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을 정도, 또는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상실이 생활유지에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경제력을 의미하였다. 이를 위해 조성되어야 할 사회적 환경으로는 여성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사회적 분위기, 자녀 양육 후 재취업 기회를 언급하였다. 이와 함께 결혼·임신·출산이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 여성에게 우호적인 직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시 말하면, 남녀 참여자들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노동시장 혹은 일터가 남녀 모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가 되고 충분한 소득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점과 더불어 특히 여성들에게는 차별적이고 적대적이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 ▶ 소주제 : 안정되고 충분한 소득
- 소득 안정성 a
- 재가 대리 양육자서비스구매력 k
- 육아휴직으로 소득 상실해도 문제되지 않을 경제력 q
- ▶ 소주제 : 기혼여성 취업 재취업 기회
- 여성 노동권 보장하는 사회분위기 a
- 자녀양육 후 맞벌이 원하나 재취업기회부족 s

- ▶ 소주제 : 기혼여성에게 우호적인 직장
- 결혼, 임신, 출산해도 경력 지속가능한 직장 a, b
- 임신 시기 개입하지 않는 직장 i / 태아에게 안전한 근무조건 i

2) 국가의 자녀양육지원

두 번째 이상적 조건은 국가의 자녀양육지원으로서, 맞벌이에 의한 부모 부재를 메워줄 가정 밖의 지원,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관한 경제적 지원, 출산휴가 후 영아보육지원을 제안하였다. 미혼근로자들은 조부모의 자녀양육지원을 상시적인 대안으로 고려하지는 않았다. 자녀양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경제적 지원은 자신들의 소득증가를 통한 경제력 확보와 같은 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자녀에 대한 국가의 경제적 지원을 희망하는 이면에는 열심히 일해도 소득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기 힘든 현실에서 자녀를 낳아 키우게 되면 지게 될 경제적 부담감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지원의 핵심은 재가양육지원정책과 보육시설의 운영

이었다. 그런데 재가양육지원정책인 아이돌보미서비스를 알고 있는 미혼남녀근로자는 없었다. 다음으로 보육시설은 개폐시간의 연장과 집주변에 보육시설이 있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국가가 체계적으로 보육시설을 관리하여 믿을만한 보육시설을 충분히 만들어줄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미혼근로자들은 보육시설에 대해 강한 불신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보육시설근무자인 친구들의 경험과 의견 그리고 매스컴의 부정적인 뉴스를 증거로 제시하였다. 보육교사의 수와 질을 확보하기 위한 처우개선과 감시 및 처벌의 강화, 학부모의 모니터링과 같은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 참여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일터에서 지내는 동안 부모가 교육하지 못한 자녀의 인성교육을 사회가 해 줄 것을 희망하였으며, 사교육비 부담을 감소시켜 맞벌이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를 희망하였다.

▶ 소주제 : 가족 외부 지원 필요

- 자녀양육지원하기에는 연로하신 부모님 n / 조부모 돌봄은 차선책 i
- 유자녀 맞벌이가정 경제적 지원 d, r
- 3개월 출산휴가 후 영아보육 완벽 지원 a
- 애 낳고 키우기 좋은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진 사회 g, h

▶ 소주제 : 보육시설 운영 방식 개선

- 조기개방 및 연장보육 a, l
- 재가 자녀양육지원책 i
- 환경 좋지 않은 직장보육시설은 no! 집주변에 보육시설 h

▶ 소주제 : 국가의 체계적 보육시설 관리

- 국가가 관리하는 보육시설 f, g
- 맡 못하는 어린이,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국가의 지원 k
- 체계적 과정으로 아이를 돌봐주는 믿을만한 보육시설 f
- 불성실운영 보육시설 수시감사 및 학부모모니터링과 국가의 협조, 제재 및 지원 제도화 s, t
- 보육시설 종사자교육 및 처우개선 s, 공무원처럼 정규직화 m
- 학대 예방과 적극 보육위한 보육교사 수 증가 m

▶ 소주제 : 자녀 인성교육과 교육비지원

- 사회적 지원 e
- 가정에서 부족한 인성교육을 사회가 해 주는 것 o, m
- 사교육비부담감소로 맞벌이가족 부담 완화 m

3) 맞벌이 부부의 능동적 조정

연구에 참여한 미혼남녀근로자들은 맞벌이로 인한 어려움이나 문제를, 부부가 능동적으로 조정해야하며 또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즉 맞벌이의 어려움이나 문제를 부부가 개인주의적으로 행동하고 대처하기 보다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소통의 과정을 거쳐 협조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또한 남성도 가사노동에 대해 주인 의식을 갖고 공평하게 적극적으로 분업에 참여하기를 주장하였는데 여기에는 g와 같이 남성참여자들도 동의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능동적 조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맞벌이 부부를 위한 지원제도를 홍보함으로써 활용 가능한 자원을 증가시켜주거나, 맞벌이부부를 위한 지침 혹은 의견조율방식을 교육을 통해 습득하게 해주거나, 더 나아가 스마트폰의 앱 개발로 필요할 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받거나 상담할 수 있으면 더 촉진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맞벌이가정 유지에 이상적 조건으로서 당사자들의 능동적 조정을 강력히 주장한 것은 희망적이며 그 동안의 일-가정양립지원정책에서 맞벌이부부를 대상화함으로써 맞지 않는 정책을 폈거나 이들의 주체성을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시도하지 못한 정책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성을 시사해 준다고 하겠다.

▶ 소주제 : 가정 내 소통의 결과 가정사 공유

- 가정에서서 부부간 소통“너 이거 해!”“아닌”우리 이거 할까?” m
- 맞벌이로 인한 문제, 부부 협조로 극복할 수 있음 e

▶ 소주제 : 공평한 가사분담

- 더 이상 부인이 main이라는 생각 탈피 a, g
- 남성, 가사보조자의식 탈피d, 가사 회피하는 오래된 의식의 변화 r
- 진심어린, 주인의식 가진 가사분담 q

▶ 소주제 : 맞벌이부부 가정운영방식 상담 정보제공 교육

- 맞벌이 부부를 위한 지침 전달 p
- 실시간 상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스마트폰 활용 p
- 맞벌이부부 의견조율방식 교육 m
- 맞벌이 부부 지원제도 홍보, 접근성 제고 a, d

4) 육아휴직제도 개선

연구참여자들은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하여 맞벌이 부부가 교대로 자녀를 직접 양육함으로써 최대한 부모양육기간을 연장하기를 희망하였는데, 이는 남성근로자(k, o)들도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다면 바람직할 것이라는 희망의 피력에서 알 수 있다. 자동차부품회사에 연구직으로 근무하는 남성

근로자 o는 법정기준을 외면하고 배우자출산휴가를 하루로 제한하고, 육아휴직은 제도 자체가 없는 현실적 상황을 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열악한 육아휴직문화를 보여주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육아휴직제도가 운영이 힘든 중소기업과 개인 근로자간의 협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강력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데, 구체적 내용으로는 연구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때, 국가가 법의 준수를 감시하고 대체인력의 활용방안이나 비용지원 그리고 감세 등 육아휴직제도의 충실한 실행을 위한 인센티브를 기업들에게 제공하여 법의 준수를 촉진해 줄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 소주제 : 남녀 활용 가능한 육아휴직제도
 - 만 3세까지 부부 교대 양육하도록 남녀 근로자의 육아휴직제도 k
 - 복귀가 보장된 엄마의 1년간의 육아휴직 j
 - 남성, 육아휴직 활용 가능하도록 d ,o
 - 남자도 육아하고 싶지만 내 직장엔 제도가 없다. 출산휴가도 단 하루로 제한 o
- ▶ 소주제 :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국가의 지원
 - 육아휴직 법적 보장되는 회사 / 위반 시 법적 제재수단 필요 m
 - 육아 휴직 시 대체인력활용방안 연구 및 지원 a / 대체인력 비용지원 a
 -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개입 n / 감세 등 인센티브제공 m

5) 일터를 양육친화적으로 변경하기

미혼근로자들은 구체적으로 일터를 어떻게 양육친화적으로 전환할지에 관해서도 논의하였다. 먼저, 자녀 돌보기에 도움이 되는 근무조건으로는 보육시설 운영시간에 맞춰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방안이나 정시퇴근을 지적하였다. 또한 자녀와 주말을 보낼 수 있도록 주말 휴무를 준수하며, 평일에 부모가 교대로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주5일제 근무를 실시하거나, 퇴근 후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유자녀 근로자들의 업무량을 감축하는 방안, 초등학생자녀를 위한 학교참여휴가제 등을 언급하였다. 주야간 2교대로 자동차생산회사에 근무하는 남성근로자 k는 2013년 기아자동차나 현대자동차와 같은 기업이 주간 2교대로 전환한 사례를 들면서 주야 2교대를 주간 2교대로 전환하는 것도 제안하였다. 또한 양육친화적 일터로 변경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으로 연구참여자들은 야간 회식과 야근의 최소화이다. 즉 점심시간을 이용한 간략한 회식으로 회식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고, 또는 회식이라는 비공식적 유대관계

형성방식 자체를 부정하기도 하였으며, 상사눈치보기용의 야근을 중지하는 것도 언급하였다. 또한 휴가사용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의무휴가제 도입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양육하는 근로자를 회식과 야근에서 제외해주는 직장 동료들의 배려문화나 문제가 되는 중간관리자들의 근무태도 변화도 맞벌이의 이상적 조건으로 중시하였다. 중소기업에서 노사 중간 역할을 통해 일가정양립과 관련된 이슈를 중개하는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제안하였다. 이들이 현재의 일자리를 지속하면서 맞벌이가정을 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터에 관한 이러한 제안점들이 수용되어야만 이들의 미래 맞벌이가정은 바람직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 ▶ 소주제 : 자녀돌보기 쉽게 근무조건 변경
 - 출퇴근 시간 재량 b
 - 부부 같이 휴일에 자녀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k
 - 주5일제 탄력적 운용으로 부모 교차하여 재가, 양육 p
 - 방학 때 점심을 챙겨줄 정도, 엄마 시간용통성 l
 - 부부 모두 6-9시 정시 출퇴근 a, i
 - 아이, 보육시설 제 때 찾을 최소 한 명의 정시 퇴근하는 부모 b, l
 - 업무스트레스가 낮고 업무량이 적은 것 a
 - 초등학교자녀 둔 부모 학교참여휴가제 j
 - 주야간 2교대를 주간 2교대로 전환 k
- ▶ 소주제 : 야간 회식과 야근 최소화
 - 점심시간을 활용한 간략한 회식 j
 - 야간회식(비공식 회합) 통한 유대관계형성 및 불참자 비난 중지 i
 - 상사눈치보기용 무료한 야근 중지 l, j
 - 의무휴가 제도화(휴가보상비로 대체하지 못하게) j
- ▶ 소주제 : 가족친화적 직장 문화
 - 양육기 근로자, 회식과 야근제의 퇴근하도록 하는 직장 동료들의 협조 k
 - 관리자의 일중독 해방과 부하들에 대한 배려 k
 - 휴가 등 근로자 권리 찾기 위한 노사 간 중간 역할하는 노동조합 같은 장치 필요 l, j

V. 연구결과 요약 및 논의

이 연구는 바람직한 사회로의 변화를 추구하는 비판과학적 시각에 입각하여, 미혼근로자들이 바라보는 맞벌이가정에 관해 당사자들과 면담을 하였고, 그 면담자료로부터 귀납적으로 추론된 맞벌이가정에 대한 심상과 어려움의 두 차원,

즉 여성취업과 가사노동의 제 측면들을 살펴보았으며, 그 해결방안에 대해 조망해보았다.

미혼근로자들은 돈벌이여부, 부부의 개별적 취업여부를 맞벌이가정의 공통점으로 생각하였고, 자녀의 존재여부와 생계형인지 전문직인지에 따라 그 가정이 맞벌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였다. 남성 혼자 벌어서는 생활이 불가능하다거나 보다 높은 생활수준을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맞벌이를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현재 수입이 희망하는 수입보다 현저히 적은 미혼근로자들에게 맞벌이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으며, 주변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방식으로 인식하였다. 미혼여성이 결혼 후 일을 지속하겠다는 의향 그리고 미혼남성 역시 맞벌이를 선호한다는 점(Lee, 2009a; Auh, Cho & Koh, 2010)은 경제적인 이유가 크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그러나 맞벌이에 여성 취업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여성들이 선택하고 결정할 일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러한 선택적 특성을 부부 합의와 관련지어 인식하고 있었다.

여자 생각에 달린 거 아닌가요. 여자가 하고 싶으면 자기 뭐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은 나가서 일을 하는 거죠. 여자가 성향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나는 사회에서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없고 현모양처가 꿈이다 그러면 당연히(아동양육)수당을 받고 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얘기 나왔다고 접을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맡기고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야죠.(남성 연구참여자 g)

또한 면담내용에서 나타난 여성취업의 불가피성과 선택성은 기혼여성의 취업노동 특성, 맞벌이가정의 가사노동 특성, 그리고 그에 대한 당사자들의 입장과 시각의 차이와 관련되어 있었다. 미혼근로자들이 본 기혼여성의 취업노동은 가정의 필요와 노동시장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 취업이 생계유지와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강제적 수단이라는 데에 남녀가 동의하였으나, 남성근로자들에게는 생애주기의 초기단계에 긴요한 임시적인 것으로 간주되었고, 취업을 하거나 그만 두는 것 모두 여성의 선택으로 보였다. 즉 남성근로자의 뿌리 깊은 가정의식에 의해, 그들은 가족생활주기 초반 가계의 경제적 기반을 닦는데 아내의 취업노동을 활용하고,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때가 되면 아내를 가사노동과 양육에 배치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전통적 성역할에 근거한 부부간 역할분담태도는 약화되었으나 일차적 가사담당자는 여성이, 일차적 생계담당자는 남성이라는 견고한 성역할 분리 정체성(Kang, 2009)”을 재확인해준과 동시에, 남성들의 발언을 통

하여 여성취업과 자녀양육을 놓고 성별 협상을 할 때 가정의식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통찰하게 해 주었다.

남녀 근로자 모두 여성의 취업을 개인의 정체성을 기획하는 수단으로 생각하였지만, 남성은 여성과의 관계에서 개인 대 개인의 경제적 동맹관계를 맺게 하는 수단으로 본 반면, 여성은 본인의 취업이 남성과의 부부관계에서 동등한 지위를 확보하게 하는 수단으로 보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André(1987)의 설명대로 기혼여성은 취업을 통해 사회적 소속감과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며, 자신의 능력개발, 직업적 경력과 자아실현을 추구할 수 있고 그 소득으로 가정경제를 안정시키고 생활수준 및 생활표준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며, 나아가 남편에 대한 경제적 의존으로부터 벗어나 독립된 경제권을 획득하고, 가정경제에 기여한다는 자부심과 자존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여성의 일은 남성의 일에 비해 부차적인 것, 가계에 보탬이 되는 일로 간주되며 가계에서 소득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처한 경우에 가장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보조적 방책으로 제시되는 것임(Kim, Rhee & Sung, 2000)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미혼근로자들은 맞벌이가정 남성의 가사분담을 당연한 것으로 수용하고 있지만, 맞벌이 부부의 공평한 가사분담 원칙이 현실적으로는 실현되기 어려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이들에게 맞벌이가정의 가사분담은 전략적 고투를 의미하는 주제다. 또한 미혼남성들이 거론하는 다양한 가사분담방식이란 합리적 분담방식에 대한 공적인 담론의 부재에 대한 반증이다. 따라서 개별 가정의 협상에 따라 분담방식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개별 가정의 협상은 성별가사분담의 사회적 전통에 길들여진 남성과 여성이 그 전통을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맞벌이가정 여성의 일상생활은 가사의 주요책임자로서 ‘이중노동과 총 노동 과잉’으로 특징지어지고, 가사분담에 대한 부부간의 기대불일치에 따른 갈등은 상존하게 될 것이며 가정의 민주적 관계가 손상되어 건강성이 떨어질 것이다.

보기 좋게 남들 앞에서는 ‘내가 집안일 도와줘야지. 요즘 세상에 집안일 안하는 남자가 어디 있어’라고 말은 하지만 그 밑에 ‘그래도 메인은 여자야, 요리는 여자가 해야 돼, 뭐 청소 그런 건 내가 도와주지만 어떤 거는 꼭 여자가 해야 된다’라는 그게 딱 깔려 있어요. 많이. 한국사회에 그런 정서적인 분위기가 집안일을 여자가 메인으로 주도해서 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집에 가서 ‘나 오늘 가서 빨래해야 되는데 밥해야 되는데’ 그런 걱정을 해요. 하지만 남자는 집에 가서 조금 도와주고 얘기하고 조금 놀아주면 된다 그거거든요. 그니까 차이가 있어요(여성 연구참여자 a).

선행연구에서는 이런 현상을 남녀 간의 명확한 역할구분과 차별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지만, 여전히 여성에게 요구되는 어머니 역할의 중요성과 기능적 특수성을 수용하여 자녀돌봄 적합자로 여성을 지목하는 불균형적 현상(Kim et al., 2010)이라고 해석하였다.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약하거나 노동시장의 주변부에 위치한 미혼 여성들은 가정경제가 남녀 모두의 책임이라고 여기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이상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족 내 성별분업을 수용하게 된다(Kim, 2004)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미혼근로자 가운데 가사의 주요책임자와 보조자를 성별에 따라 나누는 기존의 관념을 남성참여자들은 무비판적으로, 이에 반해 여성참여자들은 패배주의적으로 수용하였다. 이로 인해, 여성근로자들은 맞벌이로 살게 될 결혼생활에 대해 낙관적이지 못했다.

한편, 미혼근로자들은 가사노동의 성별분업이 노동시장에서의 성별분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관행들을 보고하였으며, 이러한 사회적 관행에 개인적으로 저항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남녀 근로자가 당연시하면서도 실제로는 하기 어려운 공평한 가사분담은 개인과 가족의 범위를 벗어나서 사회적인 관행과 문화의 변화가 병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관행과 문화의 변화에 정부가 간접적으로 개입할 근거가 있다고 하겠다.

끝으로 맞벌이가정의 이상적 조건에 대한 논의에서 두드러진 점은 부부가 능동적으로 조정하여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당위성이다. 능동적 자기 조정이 필요한 이유는 근무여건과 가족특성이 각기 다른 맞벌이가정들에게 하나의 이상적인 문제해결방식이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당사자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맞벌이 부부가 사랑을 토대로 함께 노력한다면, 그들 맞벌이가정에게 적합한 이상적 조건을 조성하는 방식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모두 동의하였다. 이러한 결과의 시사점은 기존의 일가정양립정책이 일정한 전형적 가정을 전제로 하는 데에서 탈피해야 하며, 아울러 가정을 대상화하여 지원하는 방식을 지양해야함을 암시한다.

잘 모르겠는데 그냥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함께 하려고 하고 함께 이제 뭐라도 같이 하려고 하고... 대화도 좀 하고 그 방법을 같이 함께 모색해 나가는 게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한테 가장 맞는 걸 딱 정확하게 그런 이상적인 거 틀에 박힌 거 공무원부부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수만 가지 직업이 있고 타임도 막 돌아가는데 그 안에서 이제 어떻게든 해결을 해 봐야 되는데 서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러면서 많이 방법도 찾아보

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여러 번 해 보다 보면 자기들한테 맞는 이상적인 걸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여성 연구참여자 1)

그렇지만 미혼근로자들은 맞벌이가정이 갖게 될 어려움을 그와 같은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방식으로 풀어간다고 해도 가정단위의 능력을 벗어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지원을 희망하였다. 사회적 지원의 두 가지 핵심은 바로 일자리와 소득 보장, 그리고 자녀양육문제의 해결이다. 양육지원정책을 국가가 총괄하여 재가 양육지원제도를 마련하고, 현재 미혼 근로자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미혼근로자들의 보육시설에 대한 불안감은 매스컴의 사건·사고 위주의 선정적인 보도의 영향으로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수요자들의 불안감을 낮출 수 있는 보육시설개선의 실질적이고 확고한 성과가 필요하다. 육아휴직제도 활용에 대해서는 제재와 유인의 제공을 국가가 할 일로 거론하였는데, 연구참여자 중 교육 공무원과 사법 공무원을 제외한 중소기업 근무자들에게는 국가의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이 체감되지 못하고 있음이 역력하였다. 마지막에 포함된 가족친화적 직장문화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제언은 가족친화적 일터를 조성하는 정책 중 동료 근로자나 중간관리자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문화를 조성하도록 교육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는 비판과학적 시각에서 노동시장과 가정경영의 두 측면에서 한국사회의 특수한 맥락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미혼근로자들의 무력감을 해소하고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담론형성 및 사회변화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는데, 연구결과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맞벌이가정의 일·가정양립 정책에 대한 논의 가운데 ‘일’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일자리 확보문제는 가계소득 증대와 소비표준의 달성이라는 가계의 이익 차원에서, 그리고 개인의 직업정체성을 확보하고 일-생활 균형을 가지려는 남녀 모두의 인간적 필요 차원에서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연구참여자들은 맞벌이가정에 관한 면담에서 남성의 취업을 당연시함에 따라, 남성 취업의 어려움은 전혀 언급하지 않는 기이한 현상을 연출하였다. 이는 오히려 남성의 취업이 불가능하거나 단절되는 경우 가정생활의 형성과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반증이다. 그 동안 일-가정양립정책의 논의에서는 대부분 이미 일이 확보된 근로자를 정책의 대상으로 전제하고 있어서, 일에 대한 논의가 배제되어 왔다. 성차별을 받는 여성들의 일자리에 대한 논의는 더 더욱 배제되었다. 저출산 이슈와 일가정양립 이슈에서 ‘일’이 먼저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하는 이유는 일자리와 소득 없

이는 결혼의 전제조건이 구비되지 못할 뿐 아니라, 또 '일'에서의 불평등이 일과 가정 간 불평등한 성별분업을 낳고 악순환하게 하며 기혼여성의 개인적 정체성 기획을 방해하고 부부간 불안정한 가사분담을 존속시키기 때문이다.

둘째, 부부 모두 전일제로 맞벌이를 하는 가정을 위하여 완벽한 양육지원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맞벌이부부에게 국가가 생산해 주길 바라는 최우선의 공공재가 바로 자녀양육지원서비스였음을 감안할 때 국가는 수요자 입장에서 자녀양육지원체계를 완벽해나가야 한다. 보육시설의 신뢰성 확보와 양적 확충은 근로자들의 근로현실과 인식을 면밀히 조사하여 실행될 필요가 있다. 먼저, 부부의 근무여건에 따라 다양한 조합의 맞벌이가정이 산출되며 그 다양성에 상응하는 양육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직장의 물리적 환경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근로자들은 직장보육시설보다는 집주변의 보육시설을 선호하였고, 전문성 있고 소수아동을 돌볼 보육인력을 원하고 있으며, 학습위주의 교육보다 부모의 부재로 인한 인성교육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기를 기대하였다. 그런가하면 보육시설의 운영과 감사에 학부모 참여를 희망하였음도 고려하여 이들의 활동공간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참여는 양육지원제도의 수혜자가 그 발전에 기여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혼근로자들은 조부모 양육에 관해 조부모의 건강측면에서, 부족한 자녀양육지원체계를 메우는 차선책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혼근로자들은 국가의 자녀양육정책의 구체적 사안과 내용을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결혼과 출산을 앞 둔 장래의 맞벌이 당사자들에게 가용한 사회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셋째, 맞벌이부부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부부의 주체적 능동성을 전제로 한 국가의 간접지원이 필요하다. 맞벌이가정은 일과 가정을 양립하고 개인단위의 일-생활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일상의 많은 도전과 문제에 직면하게 되며, 이 연구에서 보여주었듯이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문제해결 의향이 있지만 그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국가의 간접적인 지원을 요구하였다. 노동권의 확보나 부모권의 확보 그리고 부부간 조정의 문제를 가정 내에서 완벽하게 해결 할 수 없다. 육아휴직제나 가족관련 휴가 혹은 출퇴근과 관련된 일터 중심의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은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서 근로자들의 일가정양립과 관련된 상향식 요구를 반영할 기구가 부재하거나, 유효한 가족친화정책의 실행에 소극적인 관리자들의 의식 때문에 방해받는 것이 보편적인 현실이다. 따라서 국가는 근로자와 기업 사이에서 약자인 근로자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역할을 해야 하며, 기업에게 제도를 홍보하고, 실행방안을 안내하며,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해야 한다.

넷째, 가사노동과 시장노동에 대한 성별분업의 완화와 절제를 위한 구체적인 방식의 연구와 장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먼저 우리사회에서 가사노동의 남녀분담에 대한 연구와 사회적 논의는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으나,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볼 때 현실에서의 변화가능성은 여전히 낮아 보인다. 성별분업의 세대 간 전수와 성차별적 노동시장의 관행이 함께 맞물려있기 때문에, 현실에서의 변화는 양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향후 우리사회는 맞벌이가정, 즉 2인 소득자 모델이 갈수록 대세가 될 것이므로 각급 학교와 가정에서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의 결혼 전 예비교육프로그램에서 구체적인 상황별로 성별분업의 세대 간 전수가 단절될 수 있도록 학습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그 동안 가사분담의 당위성에 대한 주장은 어느 정도 수용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구체적인 각본의 결여는 실행의 근거부족을 낳고 있다. 또한 기혼여성의 취업이 개인의 정체성기획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당사자들의 의견을 통해 확인하였듯이 가정단위에서 남편과 자녀가 아내와 어머니의 직업지속을 지지해야 하며 그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도 규명되고 또 교육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은 남편과 자녀들에게 억압적인 방식, 죄책감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사랑에 근거한 상호지원과 그로 인한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의 차원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한 광역시에서 소수의 젊은이들을 연구한 것에 불과하지만, 그 의의는 장차 결혼하여 가정을 꾸릴 젊은이들을 연구참여자로 삼아 맞벌이가정의 일·가정양립 정책의 논의를 확장시켰다는 데 있다. 비판과학자들의 역할은 가치의 옹호자, 변화의 중개인, 윤리적 논쟁의 주도자, 구체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정책제안자라고 한다(Monroe, 1991; Yang, 2007:2에서 재인용). 향후, 이러한 역할에 충실한 후속 연구는 이 연구에서 새롭게 드러난 다양한 변수들과 삶의 질에 대한 전망을 전국의 미혼남녀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양적 연구로 입증하거나, 일 가정 양립 정책의 입안자와 실행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질적 연구(Qualitative Inquiry)를 통해 심층적으로 탐사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André, R. (1981).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translation(1987). *Homemaker : The Forgotten workers*. Seoul: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Auh, S., Cho, H. & Koh, S.(2010). Research on the delayed family formation phenomenon among the never-married professionals in Korea : A qualitative study with focus groups. *Journal of Korea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4(2), 1-19.
- Chang, J.(2005). A primary study on preference of fertility policies based on perspectives of the marriage and having a child.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3(11), 165-183.
- Hong, S.(2011). Fair society and work-family reconciliation. Paper presented at the 28th anniversary symposium of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23.
- Kang, I. S.(2009). Research on the attitudes on work-family relationship and gender roles: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employed women and non-women. *Democratic Society and Policy Studies*, 15, 237-274.
- Kim, H.(2010). Working mothers' attitudes toward maternal employment and beliefs regarding child care quality according to the operating modalities and Hours of child care center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8(7), 111-118.
- Kim, H., Sun, B. & Kim, S.(2010). Women's late marriage and low fertility.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Kim, J.(2006). Marriage intention among never-married men and women in Korea.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29(1), 57-70. o
- Kim, K.(2004). Views of marriage among unmarried graduate women who are contingent workers. *Family and Culture*, 16(3), 175-199.
- Kim, K.(2008). A Study On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Dual-Income Coupl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eongju University, Cheongju.
- Kim, M.(2011a). A Study on the Vitalizations of a Child Care Network that Enables the Dual-Earner, Low-Income Households to Achieve a Balance between Their Work and Family.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Gyeongbuk.
- Kim, N.(2011b). A Study on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values and childbirth of the unmarried. *Journal of Social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 26, 5-23.
- Kim, S. & Jeong, M.(2006). A Study on Working Mothers' and Grandmothers' Perceptions of Child-care.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1(5), 67-96.
- Kim, S., Park, J., Kim, Y., Kim, Y., Choi, Y., Son, C. & Yoon, A.(2012). 2012 National Surveys of Marriage and Live Birth.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Kim, S., Rhee, K. & Sung, J.(2000). Relationships between employment of married women and child bearing. *Korea Journal of Labor Economics*, 23, 219-239.
- Kim, Y. C.(2012).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1: Bricoleur*. Seoul: Academypress.
- Kincheloe, J. L. & McLaren, P. L. (2011). Rethinking critical theory and qualitative research. Denzin, N. K. & Lincoln, Y. S. (3ed.).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Calif.: Sage Publications.
- Lee, H. & Kang, Y.(2013). Determinants of the Level of Family Friendly Management.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3(2), 420-430.
- Lee, S. et al. (2005). Causes of low fertility and response plan.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Lee, T.(2009a). A relative analysis of role orientation and job adjustment according to single woman's intention concerning work continu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Kyeonggi-Do.
- Lee, W.(2009b). Working mothers' work-child rearing strain and their demand on back-up care services. *Journal of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7(4), 117-126.
- Lee, Y. & Gu, Y.(2008). Employment experiences and attitudes about marriage for single women in Korea. *Korea Journal of Population Education*, 1(1), 37-60.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2012). 2012 National childcare surve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MKnews (2011. 4. 14).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237512>
- Moneytoday(2009.12.2).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9120210100501852&outlink=1>
- Moneytoday(2009.12.22).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9122210015487681&outlink=1>
- Moon, S.(2012). Effects of marriage and family values

- on the marriage intention and expected marriage age of unmarried young women.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7(3), 5-25.
- Mulsow, M. Caldera, Y. M., Pursley, M., Reifman, A., & Huston, A. C. (2002). Multilevel factors influencing maternal stress during the first three yea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4(4), 944-956.
- Park, E. & Chun, H.(2011). The effect of vocational consciousness on female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f marriage and childbirth. *Journal of Korean Family Relations Association*, 16(2), 87-105.
- Statistics Korea(2008). 2008 Report on the social survey.
- Statistics Korea(2011). 2011 Report on the social survey.
- Statistics Korea(2012). 2012 Report on the social survey.
- Um, M. & Kim, H.(2011). An exploratory study on the relationships among the future work-family compatibility, gender attitude of couples, and reasons for low birth rate.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4(3), 179-208.
- Yang, S. & Shin, C.(2011). Work-Family Conflicts: Challenges of Working Mothers with Young Children.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1(3), 70-103.
- Yang, S.(2007). A Critical Science Research on the Families of Critically Ill Patient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5(3). 1-10
- Yoo, H. & Hyun, S.(2010). The effects of economic resources on marriage-delaying.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3(1), 75-101.

접수일 : 2013년 05월 20일

심사일 : 2013년 06월 17일

게재확정일 : 2013년 06월 25일